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투르크메니스탄

### Turkmenistan

2021년 6월 29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488천 km <sup>2</sup> 	<b>인구</b> 594만 명 (2020) 	<b>정치체제</b> 대통령 중심제 	<b>대외정책</b> 러시아 및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 
<b>GDP</b> 474억 달러 (2020) 	<b>1인당GDP</b> 7,967 달러 (2020) 	<b>통화단위</b> Manat 	<b>환율(\$기준)</b> 3.50 (2020) 

-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 러시아, 카타르에 이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보유국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9.9%인 19.5조 m<sup>3</su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2007년부터 집권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에 90% 대의 득표율로 재선, 3선에 성공하여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되며, 강력한 중앙집권 방식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 WTO 옵저버국으로 가입하여 국제사회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과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부문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천연가스 수출을 재개하고 에너지 개발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건설하여 중국으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출을 유지하고 있음. 2019년에는 러시아로의 가스 수출을 재개하였고, TAPI(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 가스관 건설을 통해 향후 인도, 파키스탄 등으로 가스 수출을 계획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2. 7 수교 (북한과는 1992. 2. 10)

**주요협정**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 공동협력위설립협정(이상 '08), 항공협정('09)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19,822	13,111	69,000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수입	116	10	5	면,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6건, 960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6.2	6.4	6.2	6.3	0.8
소비자물가상승률	3.6	8.0	13.3	5.1	7.6
재정수지/GDP	-2.4	-2.8	-0.2	-0.4	0.1

자료: IMF, EIU

### 2016~19년 6%대를 지속한 경제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급락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19년까지 에너지자원의 생산 및 수출을 통해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8%로 크게 하락함.
-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에너지 산업의 생산과 수출규모가 감소했으며, 이는 소비재, 식료품 등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3~14년 10%대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2015년부터 6%대로 하락하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대 가스 수입국인 중국의 가스 수입이 감소한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0.8%로 급락하였음. 2021년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대 중국 가스 수출 증가로 4.6%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자국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Fitch, EIU 등은 정부가 시행한 교통운행 제한, 식당·카페 등 서비스 업종의 영업 제한, 2020년 11월의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의무착용(위반시 14달러의 벌금부과) 등을 토대로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또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의 국경 통제조치를 실시한 바 있음.

### 기관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성장률 발표

단위: %

연도	IMF	EIU	IHS Markit
2019	6.3	3.0	6.3
2020	0.8	-0.8	1.6
2021	4.6	2.6	4.4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은 경제전망 기관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기록하고 있음.

## 국내경제

-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생산규모는 2015년, 수출규모는 2014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하였음.
- 천연가스 생산은 2015년 659억 m³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감소를 지속하고 있음('16년 632억 m³, '17년 587억 m³, '18년 615억 m³, '19년 632억 m³).
- 천연가스 수출도 2014년 416억 m³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여 2019년에는 316억 m³를 기록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별 천연가스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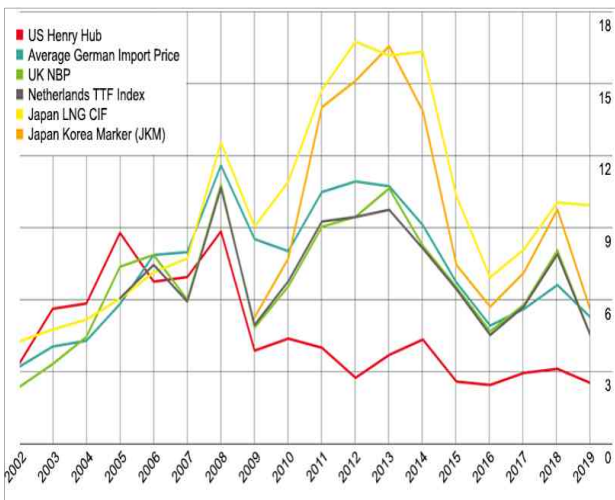
단위: 억 m³

연도	전체	중국	러시아	이란	기타
2009	167.3	0	106.6	57.7	
2010	197.3	35.5	96.8	66.0	
2014	416	255	90	65	
2015	381	277	0	72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 31
2016	373	294	0	67	카자흐스탄 11
2017	336	317	0	0	중동 지역 17, 카자흐스탄 3
2018	352	333	0	0	중동 지역 19
2019	316	316	0	0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천연가스 국제가격 추이(2012~19년)

단위: 달러/MMBtu



자료: BP

### 천연가스 국제가격(2020년)

단위: 달러/MMBtu



자료: <https://globalgnhub.com>

## 국내경제

### 소비자물가는 안정되는 추세, 재정수지도 개선 중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 13.3%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5.1%로 하락하였으며 2020년에도 7.6%로 한 자릿수를 유지하였음.
  - 2018년 정부의 수입대체정책 추진에 따른 식료품 수입의 감소로 인한 식료품 부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소비재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등한 바 있음.
  - 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민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축소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17년의 -2%대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0.2%, -0.4%로 개선되었으며, 2020년에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0.1%의 흑자를 기록함.\*\*
  - 2016년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 중단 이후 천연가스 수출 감소로 인해 국영 에너지기업으로부터의 세입이 감소하여 2016~19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국민들이 사용하는 가스, 전기, 휘발유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음.
- \*\* 그러나 EIU 등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공공분야 임금 지불 연체, 달러화 환전 제한, 국민들에 대한 가스, 휘발유, 필수 식품 등에 대한 무상 지급 폐지 등으로 미루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EIU는 2020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재정수지를 GDP 대비 -1.4%의 적자로 추정함.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2,995	-2,471	756	748	-2,989
경상수지/GDP	-8.3	-6.5	1.9	1.7	-6.3
상 품 수 지	2,112	3,623	7,305	7,372	3,691
상 품 수 출	7,520	7,685	9,694	10,365	6,057
상 품 수 입	5,408	4,062	2,389	2,993	2,366
외 환 보 유 액	15,672	9,778	14,805	14,302	20,777
총 외 채	8,349	10,207	11,276	13,205	12,981
총외채잔액/GDP	23.1	26.9	27.7	29.2	27.4
D.S.R.	15.0	13.6	10.6	12.9	21.0

자료: IMF, EIU

### 2020년 가스수출 감소로 GDP 대비 -6.3%의 경상수지 적자 기록

-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GDP 대비 -6.3%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6년 대 러시아, 2017년 대 이란 가스 수출이 중단된 이후 수출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8~19년에는 대중국 가스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음.
- 상품수입액은 식료품 수입대체 정책과 정부의 엄격한 외환관리 정책의 영향으로 2016년 이후 감소하였음('16년 54.08억 달러 ⇒ '18년 23.89억 달러 ⇒ '20년 23.66억 달러).

\* 정부의 외환 통제정책에 따라 공식환율은 2015년 이후 1달러 당 3.5마나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암시장에서의 환율은 1달러 당 39마나트(2021년 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외채상환능력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외채상환지표 다소 악화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액의 감소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전년도의 91.4%에서 136%, 외채상환비율(D.S.R)은 12.9%에서 21.0%로 상승하였음.
- 반면 2020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7.4%로 전년도(29.2%)와 비교하여 하락하였음. 또한 단기 외채잔액은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며,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20.7개월분 규모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임.

## 구조적취약성

###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하게 높은 경제의존도

- 천연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8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원유를 포함하면 에너지 자원의 수출 비중은 92.9%에 달하여 에너지 자원의 국제가격 변동에 국가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음.
- 에너지자원 이외의 품목들의 수출 비중은 면화 2.1%,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1.2% 등에 불과한 수준임.
- 정부는 에너지 산업 외에 섬유산업과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 운송물류 인프라 부문 등의 발전을 위한 산업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며, 산업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전체 수입의 28.0%)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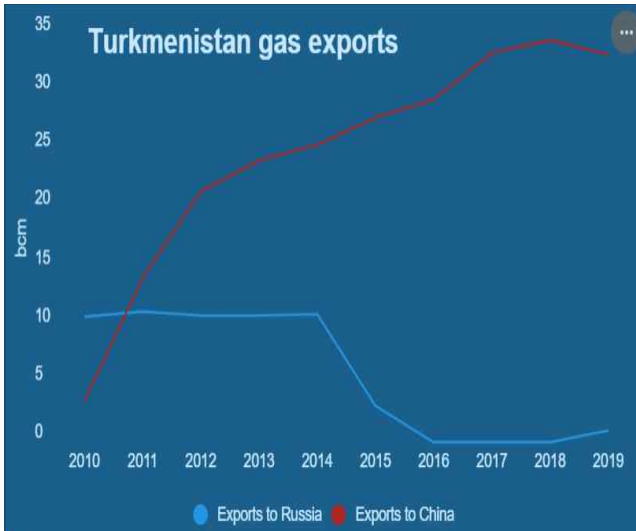
###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지속

- 중국은 2020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중국 경제의 변동에 향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2009년 12월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 이후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전체 가스 수출에서 대 중국 수출이 94.6%를 점유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체 가스 수출의 100%를 차지하여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졌음. 이처럼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점유하는 비중은 2014년의 45.4%에서 2019년에는 79.1%로 급등하였음.
- 반면 러시아와 이란 등 다른 국가들로의 천연가스 수출은 안정적이지 못함.
- 러시아는 2010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천연가스 수출대상국이었으나,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 이후 대 러시아 가스 수출량이 감소하였음.
- 2009년 말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전과 이란의 테헤란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이후 개시된 이란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은 2017년 초부터 가스 대금 미납을 이유로 중단된 바 있음.
- 중국의 경우 중국내 천연가스 생산증대, 카타르 등으로부터의 LNG 수입 증가, 대 러시아 가스수입 증가(2019년 12월 러-중 가스관 개통, 2019년 이후 북극 지역 LNG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수입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2020년 기준 중국의 전체 천연가스 수입 가운데 LNG가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은 3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됨.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중국, 러시아 가스 수출  
규모(201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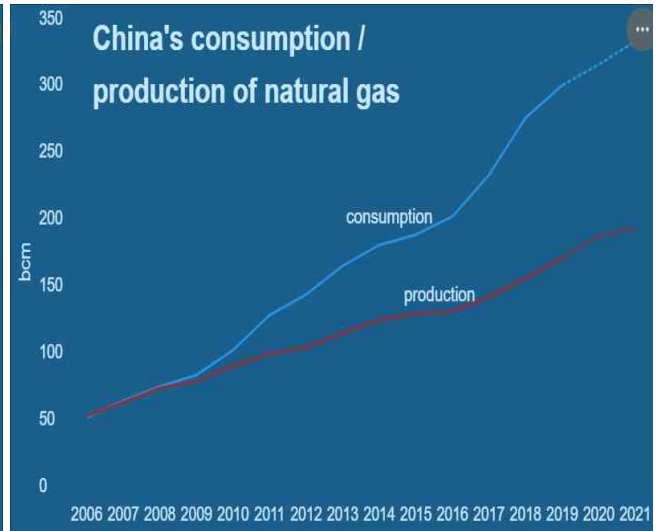
단위: 10억 m<sup>3</sup>



자료: <https://eurasianet.org>

중국의 가스 소비 및 생산 규모(2006~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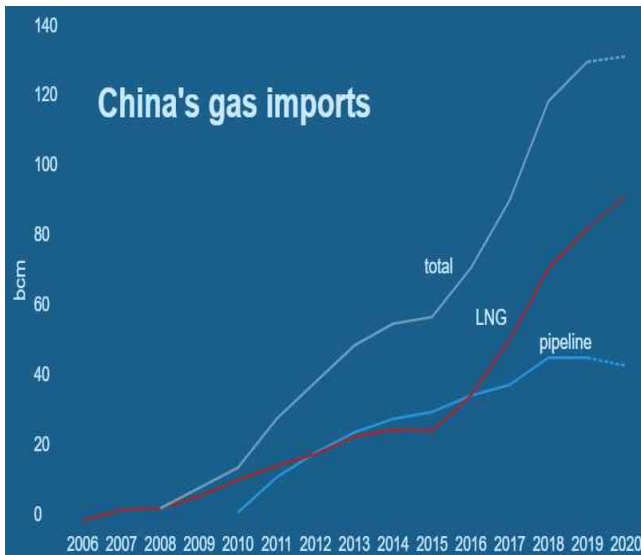
단위: 10억 m<sup>3</sup>



자료: <https://eurasianet.org>

중국의 가스 수입 규모(2006~20년)

단위: 10억 m<sup>3</sup>



자료: <https://eurasianet.org>

## 성장잠재력

###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와 이를 활용한 가스화학 산업 육성

-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19.5조 m<sup>3</sup>로 전 세계 확인매장량의 9.8%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세계 4위 규모임.
- BP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38.9조 m<sup>3</sup>), 이란(32.0조 m<sup>3</sup>), 카타르(24.7조 m<sup>3</sup>)에 이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보유국임.
- 2006년의 갈키니쉬 가스전(오스만-남올로텐 지역)의 발견과 매장량 확인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확인매장량은 1999년 2.6조 m<sup>3</sup>에서 2009년 8.2조 m<sup>3</sup>, 2012년 17.5조 m<sup>3</sup>로 증가하였음. 갈키니쉬 가스전에서 2013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이 시작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도약하였으며,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현재의 연 550억 m<sup>3</sup>에서 2030년에는 연 2,500억 m<sup>3</sup>로 증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에서 원유 및 가스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아제르바이잔과 카스피해의 분쟁 지역에서 에너지 공동개발에 합의하여 향후 이 지역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Elena Smirnova, Azat Ataev(2020), Ensuring environmental safety at Garabogaz transport and industrial complex by identifying environmental risks.

- 정부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가스화학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현재 갈키니쉬와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는데,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는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2018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연간 38만 1,000톤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과 8만 1,000톤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등을 생산하고 있음. 정부는 투자를 통해 향후 연 137만 톤의 폴리에틸렌과 71만 1,000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

###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출노선 확보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8년에 테러로 중단된 TAPI 아프가니스탄 구간 건설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양국 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1,814km의 TAPI 가스관 건설 공사 재개를 위한 안보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8월까지 공사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TAPI 가스관은 2015년 12월 착공되었으며, 2020~21년 완공과 2024년 이후 가스 공급 개시를 목표로 건설을 진행해 왔음. 투르크메니스탄 구간은 2019년 중순에 완공되었으나, 아프가니스탄 구간 건설은 2018년 5월의 반정부 무장단체의 테러공격에 의해 중단된 바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관 완공 후 갈키니쉬 가스전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에 연 50억 m<sup>3</sup>, 파키스탄과 인도에 각각 연 140억 m<sup>3</sup> 등 모두 연 330억 m<sup>3</sup>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임.

TAPI 가스관과 기존의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자료: Fitch

- 중장기적으로 카스피해를 횡단하여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유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가스관 건설이 계획되고 있음.
- 향후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이 아제르바이잔의 대 유럽 가스관(TANAP)과 연결될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새로운 가스 수출노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정책성과

### WTO 옵저버 가입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 전망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0년 7월 WTO 옵저버 지위를 획득하였음.
- 2013년 타지키스탄의 WTO 가입 이후부터 WTO 가입을 추진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0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WTO 옵저버 회원국 신청서를 제출하고, 향후 5년 동안 정회원 가입을 목표로 WTO와 협상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2020년 7월 개최된 WTO 총회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옵저버 회원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외국인투자 유치, 대외교역 증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등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됨.

### 민관협력법(Law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제정으로 민간기업의 정부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 추진

- 2021년 6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법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조업, 건설, 농업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민관협력법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대 45년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나 투자를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된 제품(서비스)의 구매나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제품(서비스)의 공급 등의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음.

### UNDP의 인간개발지수에서 여전히 낮은 순위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년 UNDP(유엔개발계획)가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국가별 순위에서 189개국 가운데 111위에 올랐음.
- 최근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교육 수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에서 세계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이는 교육 기간이 11.2년으로 타지키스탄(11.7년), 우즈베키스탄(12.1년), 키르기즈(13년), 카자흐스탄(15.6년) 보다 짧으며, 평균 수명도 68세로 타지키스탄(71.1세), 우즈베키스탄(71세), 카자흐스탄(73세)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짧은 데 따른 결과임.

## 정책성과

### 국제 물류망 개선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과 주변국 간의 철도, 해상로 물류운송 환경 개선이 전망됨.
- 2016년에 육로와 해로를 통해 'Uzbekistan – Turkmenistan – Iran – Oman transport corridor'를 연결하는 철도와 해상 물류망 건설이 합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물류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와 2020년 10월 카스피해의 페리호 물류망 구축에 합의하였음.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쉬(Turkmenbashi) 국제항만과 러시아의 카스피해 최대 상업항만인 올라(Olya) 항만 간의 안정적 화물운송망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 투르크멘바쉬 항만은 2020년 연간 1,7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현대식 항만 설비를 구축하였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3년에 합의된 총연장 435km, 투자액 20억 달러 규모의 Turkmenistan(85 km)-Afghanistan(300km)-Tajikistan(50km) (TAT) 철도 건설에 참여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 철도가 주요 물류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투르크메니스탄은 2016년 아프가니스탄과 연결되는 85km의 국경구간을 건설하였으며, 2019년 말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구체적인 철도루트에 합의하였음.

Turkmenistan-주변국 간 카스피해 물류망



자료: <https://www.silkroadbriefing.com>

Turkmenistan-Afghanistan-Tajikistan (TAT) 철도



자료: <https://cabar.asia/en>

## 정치안정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체제 지속

- 2007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7년 2월의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하여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0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의회를 상·하원으로 분리하고 2021년 3월에는 상원을 처음으로 구성하였음.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은 2021년 3월 선거인단의 투표로 상원의원에 선출된 데 이어 4월에는 상원의장으로 선출되었음.
- 현 대통령의 장남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는 2021년 2월 부총리로 임명되었으며, 감사원장, 국가안보위 위원 등을 겸직하며 큰 정치적 비중을 갖게 되었음.
-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이나 사회단체, 언론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
- 여당인 민주당 외에 2012년 창당되어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산업기업가당(Union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s), 2014년 창당되어 농촌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업당(Agrarian Party) 등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실질적인 야당은 부재한 상황임.
- 시민단체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언론도 부재한 것으로 알려짐.
- \* EIU가 평가하는 '2020 민주주의 지수'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167개국 가운데 162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보다 낮은 순위의 국가는 북한, 시리아,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등임.

## 사회안정

###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의 영향에 따른 공공 서비스 보조금 축소와 공공 부문 임금 지불 연체 등이 사회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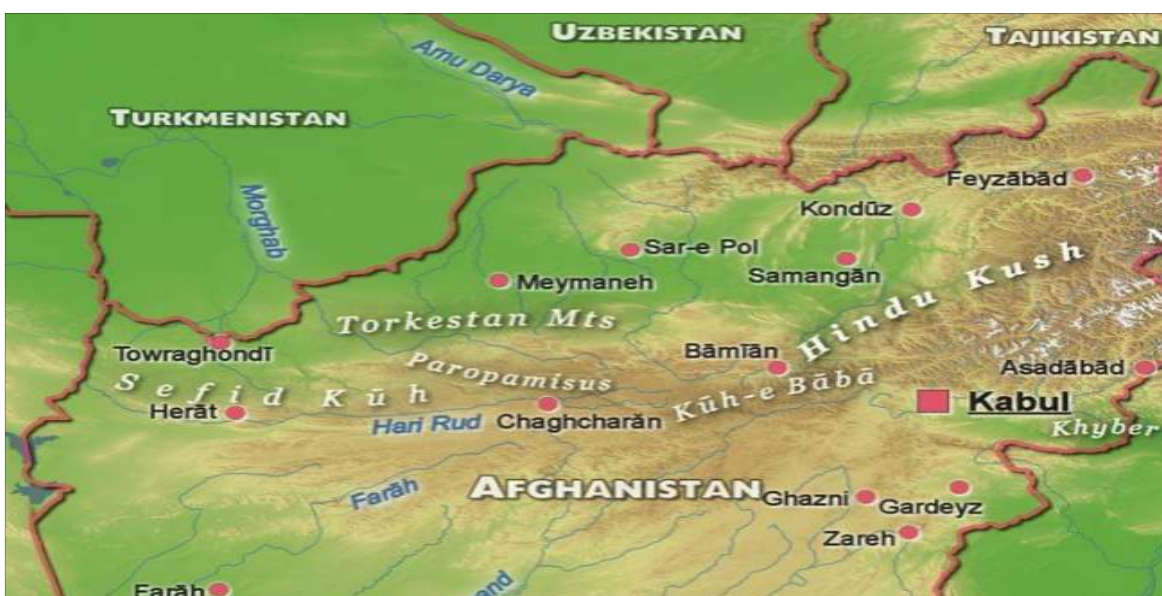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92년부터 국민들에게 수도·가스·전력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나, 2019년부터 재정적인 문제로 이를 중단하여 사회적 불만 요인이 되고 있음
- 2016년 이후 에너지 국제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 임금 체불 및 인력 감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여론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공공 부문의 인원 감축이나 임금 삭감이 추가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5월에는 지역에서 발생한 기상재해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을 비판하는 1천여 명이 참가한 집회가 제2의 도시인 투르크메나바트(Turkmenabat)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려짐.

## 국제관계

### 국경을 접한 아프가니스탄과의 협력 확대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0년 11월 UN 주도로 제네바에서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복구와 통합을 위한 국제회의'에 부총리와 외무부 장관이 참석하여 아프가니스탄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20~22년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통신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있음.
- 2021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원으로 건설된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아키나(Akina)-안드코이(Andkhoy) 철도, 전선, 통신망 2곳 등 도로 교통 인프라 개통식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가니(Ghan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여, 향후 양국 간 운송물류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와 통신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논의하였음.
- 양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학교, 건강센터, 산부인과 병원, 이슬람 사원 등의 사회적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양국은 국경지역에 위치한 아무다리야(Amu Darya) 강과 무르그합(Murghab) 강의 공동 이용을 논의하고 있음. 아프가니스탄은 향후 농업발전을 위한 수자원 활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도 면화 생산 등을 위한 수자원의 확보가 중요함.

####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아무다리야 및 무르그합 강



자료: Afghanistan's Transboundary Rivers and Regional Security

## 국제관계

###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 협력 지속

- 2016년에 중단되었던 대 러시아 가스 수출이 2019년에 재개되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다양한 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은 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유럽 시장으로의 재판매 수익 저하를 이유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가스 수입을 중단하였음. 2019년 7월 투르크멘가스(Turkmengaz)사와 2024년 6월까지 5년 동안 매년 55억 m<sup>3</sup>의 가스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이 재개되었으며 이는 양국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2020년 11월 러시아의 Tatneft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영석유회사(Turkmenabıt)와 카스피해 인근의 육상 Goturdepe 유·가스전에서 2028년까지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21년 초에는 러시아의 루코일사가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카스피해의 에너지 개발 사업인 'Dostluk' 프로젝트\*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 원유 매장량이 5,000만 톤으로 평가되는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 70%, 아제르바이잔 3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아제르바이잔 정부 간에 공동 개발에 합의하였음.

###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카스피해 해저에 300km의 광섬유 케이블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양국의 국영통신 기업인 AzerTelecom과 Turkmentelecom은 2019년 11월 아제르바이잔의 Siyazan과 투르크메니스탄의 Turkmenbashi를 해저로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 건설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2021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양국은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 확대, 운송 및 통신,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논의하였음. 현재 양국은 양국 국경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음.



## 외채상환태도

### OECD ECA에 대한 연체액 증가

- 투르크메니스탄은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으며, 전반적인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임.
- 2020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인수승인 잔액은 총 54억 2,300만 달러임.
-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억 2,230만 달러, 중장기 53억 70만 달러이며 단기 250만 달러, 중장기 50만 달러가 연체됨. 이는 2019년의 중장기 50만 달러 연체에 비해 연체금액이 증가한 것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2021.01)	7등급(2020.01)
Moody's	-	-
Fitch	-	-

### 2021년 OECD 7등급 유지

- 2020년 OECD CRE 회의에서 경제지표의 신뢰성 미흡과 정책에서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1년 6월 현재까지 등급이 유지되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3사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대 중국 가스관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노선을 확보하여 성장잠재력을 가짐. 2014년 이후 천연가스 국제가격 하락 및 생산 감소, 러시아로의 가스 수출 중단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음.
- 원유 및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전체 수출의 92.9%)가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됨. 대외 교역에서는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비중(전체 수출의 78.6%)도 취약점으로 평가되고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여 2020년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136.0%로 상승하였으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7.4%이며 외환보유액이 월평균수입액의 20.7개월분 규모로 비교적 안정적인 외채상환지표가 유지되고 있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장남인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가 부총리 등 요직에 임명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